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4월 1호

◆ 주요 동향

1. 「2020년 중국 해양경제통계공보」 발표
《2020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发布
2. 「샤먼시 '14·5' 계획 및 2035년 원경목표 강요」 발표
厦门市“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发布
3. 중국, 첫 블루카본싱크 거래사업 개발
我国开发出首个蓝碳交易项目！
4. 생태환경부, 향후 중국 해양생태환경 중점업무 밝혀
编制出台《全国海洋生态环境保护“十四五”规划》，美丽海湾成为关键词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5. '오공호(悟空号)' 무인잠수정 7790m 잠수 성공, 중국 AUV 잠수 신기록 세워
7709米！“悟空”号创我国AUV潜深新纪录
<https://mp.weixin.qq.com/s/3r5-uAjPaLEULkWyTaXchg>
6. '상양홍(向阳红)18' 과학탐사선 출항, 다과목 종합탐사 전개
“向阳红18”科考船起航，将开展多学科综合考察
<https://mp.weixin.qq.com/s/LAMzQDg851kxjVsSWbYAlg>
7. 칭다오시(青岛市) 해양 모니터링 기술 발전을 위해 2억 위안 해양산업기금 설립할 계획
青岛谋划设立2亿元海洋产业基金 发展海洋监测技术
https://mp.weixin.qq.com/s/H_xUzrefB3qZ_zU3w-x_KA
8. 중국해양석유그룹 '탄소중립'연구소 설립
中国海油成立碳中和研究所
<https://mp.weixin.qq.com/s/pDolp7JC2WWfX1Y-SJNRoA>
9. 중국 첫 만톤급 해양과학탐사선 건축 시작
我国第一艘万吨级海洋科考船开建
https://mp.weixin.qq.com/s/OKuVbuTMTfXWmQivQ_CLtw
10.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 2021년에 40개 해상풍력발전사업 중점 건설
广东省发改委：2021年重点建设40个海上风电项目！
<https://www.ne21.com/news/show-159547.html>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2020년 중국 해양경제통계 공보」 발표

- 최근 자연자연부는 「2020년 중국 해양경제통계 공보」를 발표했으며, 허광순(何广顺)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주임이 공보에 대해 설명했다
 - 2020년은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상황 및 복잡한 국제환경을 대응하기 위해, 중국 연해지역 및 관련 부문은 '6대 안정(六稳, 취업·금융·무역·외자유치·투자·경기예측)'과 '6대 보장(六保, 취업·민생·시장주체·식량과 에너지 안보·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기층운영 보장)'업무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해양경제가 분기마다 회복되면서 구조가 계속 최적화되어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었음. 이를 통해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추세를 공고하게 하였음
- 해양경제 총량 하락, 일부 해양산업 급속 회복
 - 2020년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국 해양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음. 국내소비가 억제되어 외부수요가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해양경제가 2001년 통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음
 - 2020년 중국 해양생산총액은 80조 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 해양생산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해관광업의 부가가치액은 전년대비 24.5%p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해양석유가스업, 해양어업, 해양교통운수업, 해양공정건축업, 해양선박공업 등 해양산업은 급속 회복되어 부가가치액은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으며, 증가율은 각각 7.2%, 3.1%, 2.2%, 1.5%, 0.9%를 기록했음
-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시장 주체 보장에 효과 보임
 - 코로나의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과 연해 지방정부는 해역이용료 납부 지연, 공수와 전력이용을 위한 혜택 마련, 재정장려 확대 등의 일련의 정책조치를 제정했음. 이를 통해 해양기업의 경영수익이 점점 회복되어 다시 활력을 보여주었음
 - 조사와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 76%의 해양경제활동 업체의 취업인수가 전년 연말대비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중점으로 모니터링한 규모이상의 해양공업기업의 영업수익과 이윤의 감소 폭이 연속 7개월 동안 축소되었음. 2020년의 영업수익 이윤율은 4.6%로 1~3분기보다 0.3%p 증가했음
- 해양에너지 공급 역성장, 민생보장 진일보 개선
 - 해양에너지 공급능력이 계속 강화되어, 2020년 해양원유 생산량은 5,164만 톤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음. 해양 천연가스 생산량은 186㎥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음
 - 해양청정에너지는 좋은 발전추세가 나타나 2020년 중국 해상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306만㎿로 전년대비 54.5% 증가했음
 - 민생보장에 있어 2020년 중국에서 국가급 해양목장 시범구 26개를 새로 건설되어 총 136개에 달했음

- 해양플랜트 건조역량 강화, 해양분야의 산업체인·공급체인 최적화
 - 중국은 해양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건조에 풍부한 성과를 이루어 해양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켰음
 - 선박 연구·개발·건조는 첨단화로 발전하고 있고, 심해기술장비의 R&D에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음. 17.4만㎡의 LNG선박, 9.3만㎡의 VLGC선박 등의 대량 주문이 가능해지고 2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30만 톤 친환경 초대형 원유선박, 18,600㎡ LNG 연료공급선 등 인도했음. 또한, 중국 유인잠수정 '펀더우저(奋斗者)호'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10,909m 잠수 성공하여 중국 유인잠수 신기록을 세웠음
- 디지털화로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해양분야 새로운 업태 나타나
 - 코로나 상황은 해양분야의 디지털화 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다주었음. 해양정보는 대중생활을 보장해 주고 해양경제 회복을 이끄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음
 - 중국 국내에서 '복두위성+인터넷+어업'의 원스톱 어업종합서비스 플랫폼이 41개 어항에서 활용하게 되었음. 또한, '태양광 발전+풍력발전'의 5G 해양목장 플랫폼인 '곤하이1호(耕海1号)'가 인도되어 에너지에 대한 이용으로 어업양식을 촉진했음
 - 선박의 온라인 거래 상시화가 실현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서비스 등 기술을 통해 해양분야의 유통, 소비와 서비스의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었음. 또한 해상풍력발전기지는 스마트화로 발전하여 중국 국내 첫 스마트화 해상풍력발전기지가 운영하기 시작했음
- 해양 대외무역 발전 전체적으로 좋은 추세 보여,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 구축
 - 해양 대외무역은 코로나 상황 및 반세계화의 기조를 불구하고 분기마다 좋은 발전추세를 보여주었음. 중국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의 화물수출입 총액이 12,624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2% 증가했음
 - 건화물, 철광석, 원유 및 LNG의 수입량이 대폭 증가했음. 해운 수출상황도 점점 개선되어 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었음
 - 2021년에 중국 해양경제가 계속 회복성 성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수요가 점점 회복되어 연해관광 등 해양산업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임

(中国自然资源报, 2021. 4. 2.)

<http://www.nmdis.org.cn/c/2021-04-02/74339.shtml>

「샤먼시 '14·5' 목표 및 2035년 원경목표 강요」 발표

- 최근, 푸젠성은 「샤먼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 계획 및 2035년 원경 목표 강요」를 발표하였음
 - 강요에서는 육·해 통합과 구역 합동을 견지하여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산업구조를 최적화시켜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여 현대화 해양도시와 '해양강시(海洋强市)'를 건설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음
- 해양강시 건설을 위해 해양신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해야
 - 국가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건설을 가속화시키고 특정한 해양산업체인을 구축함. 해양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해양산업 혁신 서비스 능력을 제고함
 - 해양바이오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하고 세계 해양바이오 제품 공급기지로 건설함
 - 해양고급장비, 설비와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설비의 국산화 시범기지를 구축함
 - 해양정보산업 및 스마트 해양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해양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
- 해양강시 건설을 위해 해양종합관리 강화
 - 해양종합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해상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함. 또한, 행정소송, 행정조정 및 행정중재가 해양관련 행정소송을 위한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과의 효과적 연계를 강화하고 해양 종합 법집행 능력을 제고함
 -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증식방류(增殖放流)'활동을 계속 추진함
 - 해역이용을 엄격히 규범화시키고 해양관련 사업 및 해양생태보호사업의 합리적인 해역이용 수요를 보장함
- 해양강시 건설을 위해 해양과학연구·교육혁신기지 구축
 - 경쟁력 우위 학과의 건설을 강화하고, 자원통합으로 특색적인 해양대학교를 설립함
 - 샤먼 남방해양연구센터의 건설을 지지하고 해양과학기술 푸젠성 실험실 및 해양바이오자원 개발·이용 기술 혁신센터의 건설을 추진함
 - 국내외 해양분야의 혁신 과학연구기구의 입주를 추진하고 국가 남방 해양싱크탱크를 구축함

(中国自然资源报, 2021. 4. 2.)

<http://www.nmdis.org.cn/c/2021-04-02/74340.shtml>

중국, 첫 블루카본싱크 거래사업 개발

- 최근 광둥성 잔장(湛江)의 맹그로브 숲 조림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국제 인증기준인 'VCS(Verified Carbon Standard)' 개발관리기구의 심사를 통과했음
 - 이는 중국에서 VCS 기준 및 CCB 기준(기후·지역사회·생물다양성 인증기준)에 도달한 첫 맹그로브 숲 블루카본싱크 사업이며, 또한 중국이 개발한 첫 블루카본싱크 거래사업임

- 주요상황
 - 이 사업은 중국 자연자원부 관련 부문의 지지를 통해 제3해양연구소와 광둥 잔장 맹그로브 숲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의 협력으로 완성된 것임
 - 이 사업은 보호구 범위 내에 있는 2015년~2019년 기간에 종식된 380헥타르 맹그로브 숲에 대해 VCS와 CCB의 기준에 따라 개발함
 - 2015년~2055년 기간에 16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계획임
 - 현재 베이징의 기업가환경보호기금은 이 사업이 발급한 첫 5,88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구매할 계획임

- 사업 추진의 의미
 - VCS는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증기준이고, CCB는 기후변화 완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촉진을 위한 인증기준임
 - 맹그로브 숲은 중국 중요한 블루카본 생태시스템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
 - 잔장 맹그로브 숲 사업의 추진을 통해 중국의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및 다른 생태적 가치의 시장화를 위한 사례를 제시하였음. 이는 맹그로브 숲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회자본을 유입하고 블루카본싱크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观沧海, 2021. 4. 7.)

https://mp.weixin.qq.com/s/Vvo87b4Q9_nAzuViW1Q5-Q

생태환경부, 향후 중국 해양생태환경 중점업무 밝혀

- 최근 중국환경보(中国环境报)는 커창(柯昶) 생태환경부 해양생태환경사(海洋生态环境司) 국장(司长)은 인터뷰를 통해 '육해통합, 보호우선'의 이념 아래 향후 중국 해양생태환경 관련 중점업무를 밝혔음
- '14·5' 계획 시기 해양생태환경 보호는 '아름다운 해만'을 중심으로
 - 최근 몇 년 동안 '보하이 종합정비' 등을 비롯한 중국의 해양생태환경 보호사업이 적극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육지오염 배출량이 여전히 많고 연안해역 수질의 개선효과가 아직 안정되지 않음. 또한, 해양생태 퇴화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억제되지 못했음
 - 이런 배경 아래 "올해는 해양생태환경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해만'에 대한 보호와 건설을 중심으로 해양생태환경 보호 '14·5' 계획을 편성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해양생태환경 '14·5' 계획」은 향후 한동안 중국 해양생태환경 보호를 지도하는 강령적인 정책문건이 될 것임
 - 육지수역생태환경의 품질은 '하천과 호수'를 통해 반영되고, 연안해역의 생태환경은 '해만'을 통해 반영되기에 이번 '14·5' 계획은 '아름다운 해만'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임
- 중점 해역에 대한 종합정비 심층적 실시, 보하이(渤海) 종합정비의 성과를 공고히 함
 - 올해 보하이와 연결된 오염물 배출구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계속 실시할 것이고, 또한 해양생태보호·복원 및 생물다양성 회복 등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임. 그 다음으로 창장커우(长江口)-항저우완(杭州湾), 주장커우(珠江口)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것임
 - 다음 단계에서 바다로 연결된 오염물 배출구에 관한 관리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이며, 연해지방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양오염 정돈에 포커스를 맞추어, 해양쓰레기 및 해양공정에 대한 관리 모두 강화
 - 2020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생태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정돈 강화에 관한 의견」을 함께 발표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정돈 메커니즘을 수립했음
 - 이에 대해 커창은 "이 의견의 요구에 따라 연해지방에서 모래사장 및 해상부유 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해양쓰레기의 관할구역 내의 오염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했음. 또한, 조건을 갖춘 연해 대·중(大·中)도시에서 '해상환경위생'제도를 수립하고 대중의 친수구역, 항만·해운구역 등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에 대한 정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해양공정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임. 커창은 "올해는 해양석유 탐사·개발 등 분야에서 고정오염원 오염배출 허가 시범사업의 전개를 연구할 것이고, 해양공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 해양투기 허가증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물 배출이 많은 사업을 엄격히 관제한다"고 밝혔음. 이와 동시에 「해양폐기물관리방법」 및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여 해양투기선박에 대한 '인터넷+감독'을 강화할 것임
 - 「런던협약」 등 국제협력의 이행능력을 제고하고, 중·일·한 등 지역 간의 해양환경보호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정돈, 해양생물다양성, 해양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을 심화시킴

(中国环境报, 2021. 4. 10.)

<https://mp.weixin.qq.com/s/6W4Otk8w0e3VWkrkCF4cAw>